

전환기에 선 대학사회

중세 12세기에 설립된 대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중세 전반기 사회에서는 학문과 예술이 종교의 시너로서만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르네상스로 고대의 학문이 부활되고, 학문의 공동생활을 위한 대학이 유럽 각지에 세워지게 되었다. 대학은 기독교가 지배해온 중세사회의 지성세계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현대의 고도 기술산업사회에서는 대학이 학문과 교양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적 대학 이념보다는 산업사회와의 연대, 직업교육 등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대학의 구조에 있어서도 산업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어떤 학문분야의 교육이라도 접할 수 있게 한다.'는 이념을 지향하는 복합대학(multiversity)이 출현하는 등 현대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사회도 다각적인 시도와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인류문명은 지금까지의 어떤 변화보다 격렬하고 급속한 변화가 예견되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고도 정보산업 등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의 위기론이 팽배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서구에서는 '60년대부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학사회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양적 성장에 그쳐 세계화·정보화·첨단화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산업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대학교육을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겠지만, 외형만 커졌을 뿐 그 내면은 허약한 체질임이 판명된 셈이다.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혁의 방안은 그 대학이 처한 여건과 환경에 따라



공주대 총장 이 상 우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기술과 실용을 중시하고 연구 및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와의 관계, 경쟁논리만 생각하여 지나치게 기술이나 직업교육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혁의 방안으로 자리잡기는 어렵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교양과 도덕성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폭넓은 시야와 올바른 가치관을 갖춘 자만이 문명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와, 어떠한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보다 영속적이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내다볼 수 있는 대국적인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엄청난 사회적 변화에 대학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의 대세 앞에서, 베를린 대학 창설을 허가하며 프리드리히 빌헬름 III세가 “국가는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 잃어버린 것들을 정신적인 힘으로 다시 채워야 한다.”라고 말한 의미를 되새겨 본다. 현대 독일 학문과 사회 발전의 초석을 다진 프로이센은 당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해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의 재생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러한 개혁의 핵심사업으로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의 신설이 시급히 요청되었으며,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국가가 직접 나섰다.

오늘날 대학사회는 개혁과 변화의 대세를 거부할 수 없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온갖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앞에 두고 항구를 떠나 대양으로 나선 ‘마젤란의 범선’은 방향타를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신천지를 발견할 수도 있고, 땅끝으로 추락할지도 모르며, 무역풍을 만날 수도 있고 폭풍을 만날 수도 있다. 이제 우리 대학사회가 중지를 모으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은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일진대, 개혁의 나침반을 해독하고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